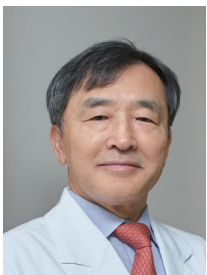




지나친 웃음은 뭔가 기괴하다. 음울한 영화인 '조커'에서 '병적 웃음'은 기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증폭시킨다.

병적 웃음, 병든 사회



글 **김종성**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2019년 아산의학상 수상자

‘하하하, 깔깔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기우(최우식 분)는 칼에 찔려 죽은 자기 여동생 기정(박소담 분)의 영정 앞에서 미친 듯이 웃는다. 엄마와 하객들은 눈물을 펄펄 흘리고 있는데 말이다.

1924년 미국의 월슨은 바로 이런 환자들을 기술했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간혹 깔깔 웃는다. 반대로 우는 환자도 있다. 웃고 울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사회적인 자극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

예컨대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 보호자가 찾아올 때 웃거나 운다. 커튼이 바람에 펄럭일 때 우는 환자도 기술되었다. 위에 말한 기우처럼 울어야 할 때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대뇌 손상 환자에게서 보이는, 이처럼 지나친 혹은 부적절한 웃음/울음을 병적 웃음/울음(pathological laughing and crying)이라 지칭한다.

병적 웃음/울음 환자가 많은 이유

1997년 이런 증상을 보이는 뇌졸중 환자들을 분석한 첫 논문을 발표한 후, 나는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 세로토닌을 함유하고 있는 전두엽/기저핵/뇌간의 신경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남을 밝혔다. 환자는 울거나 웃지만 이것은 본인의 감정은 무관하며, 우울증과는 다른 증상이다. 웃음/울음을 매개하는 운동 신경회로가 뇌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전두엽/기저핵 등에 손상이 생겨 뇌간의 웃음/울음 중추가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활성화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뇌손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이 증상도 경감되지만 비정상적인 웃음/울음은 한동안 지속된다. 예컨대 퇴원한 뇌졸중 환자가 TV를 보면서 평소와 비해 지나치게 웃거나 우는 경우다. 병적 웃음/울음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기준은 이런 환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만들었고, 현재 Kim's criteria로 사용되고 있다.

병적 웃음/울음 환자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한 번은 외국에서 강의하는데 한 동남아 의사가 손을 들며 코멘트 했다.

“한국 드라마는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게 아닐까요?”

모두 웃어 넘겼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뇌손상과 분노 조절장애

최근 병적 웃음 증상을 보인 영화 주인공을 또 한 명 만날 수 있었는데 바로 ‘조커’에 나온 아서 플릭(호아킨 피닉스 분)이다. 그도 때에 따라 참을 수 없는 심한 웃음을 터뜨리는데 당황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아예 병명을 적은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전두엽 같은 곳이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말한 기우의 경우는 지하에 사는 남자가 돌로 머리를 때려 뇌손상이 생겼다. 아마도 이로 인한 경막하 출혈이 전두엽을 손상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공교롭게도 병적 웃음 증세를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병적 울음’이 더 흔하다. 어떤 환자는 많이 웃기도, 울기도 하며,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

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다.

영화감독들은 왜 병적 웃음 증세를 갖는 주인공들을 내세운 것일까?

웃음이란 원래 즐거운 감정의 표현이다. 또한 전염성이 있어 남을 즐겁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실없는 혹은 지나친 웃음은 뭔가 기괴하다. 오히려 울음보다

도 더 그로테스크하다. 음울한 영화인 ‘기생충’과 ‘조커’에서 ‘병적 웃음’은 오히려 그 기괴한, 비극적 상황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두 영화 모두 가족적, 사회적 부조리를 그리지만 조커는 좀 더 음울하고 또한 폭력적이다. 아서는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조롱한 자들과 지하철에서 다투다 권총을 쏘 이들을 죽인다. 또한 TV 방송 중 방송인 머레이 프랭클린(로버트 드니로 분)을 쏘 죽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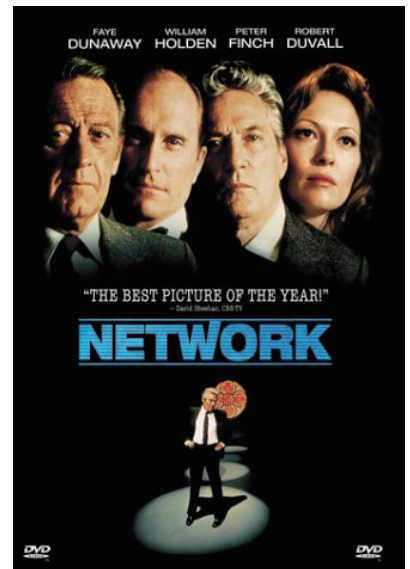
이런 점을 보아 조커는 병적 웃음에 더해 ‘분노 조절장애’ 증상도 있는 듯하다. 실제로 뇌손상 환자에게서 병적 웃음/울음과 분노 조절장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병든 사회가 유발하는 깊은 절망

신경과 의사인 나는 뇌손상 환자에게서 병적 웃음/울음, 분노 조절장애를 보지만, 뇌 손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한 우울증이나 좌절감이 있다면 헛웃음이나 분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1976년에 만들어진 영화 ‘네트워크’는 한 개인의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돈벌이에 사용하는 비정한 사회를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인기 있던 앵커 하워드 빌(피터 핀치 분)은 시청률이 떨어지자 방송국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다. 그는 당연히 분노하고, 그 행동이 좀 지나쳐 모든 방송인들이 그의 마지막 생방



분노를 다룬 또 다른 영화 ‘네트워크’의 포스터.



영화감독들은 '병적 웃음'을 통해 '병든 사회'에서 고통 받는 취약한 인간을 그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자신을 살해하는 우울과 분노

결국 '기생충' '조커' 감독들은 '병적 웃음'을 통해 '병든 사회'에서 고통 받는 취약한 인간을 그린 것인데, 현대사회가 그만큼 비정하기에 이런 영화들이 호응을 받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조커'에 나오는 것처럼 살해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절망, 우울, 분노는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 설리, 구하라 씨의 예에서 보듯 비정한 사회를 못 견뎌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린다 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되고 맑아져야 하겠지만, 평소 자신에게

우울이나 분노 감정이 있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항우울제 같은 것을 처방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이 주변에 많다. 대도시를 걸어가다 보면 한 건물에도 병원이 여러 개다.

그런데 의사들이 구원자가 될 자격은 있는 것일까?

미국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바로 의사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남보다 힘든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하지만 그만큼 대우는 받지 못하고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만 많은 것이 의사의 삶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미국에 비해 의료 수가가 매우 낮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한국 의사들의 삶의 질이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속으로 병적 웃음, 병적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직종을 불문하고 만연한 병적 웃음과 분노의 사회, 과연 언제나 고쳐질 것인가. 그런데 엇그제 신문문을 보니 올해도 수능 예상점수가 의예과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의사들의 분노는 가장 잘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 세상일 이해하기 어렵다. 🌪

송 출연을 걱정한다. 과연 그는 각본에도 없는 회사의 부당한 처리와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며 분노를 터뜨린다.

방송을 망친 하워드 빌은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젊은 PD 다이아나(페이 더너웨이 분)는 하워드의 분노와 광기에 찬 외침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시청률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위한 고정 프로를 만든다. 여기서 하워드는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터뜨리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한다. 광기 서린 눈을 크게 부릅뜨고 '여러분, 모두들 창문을 열고 나가 소리치세요. 나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러면 실제 TV를 시청하던 많은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그렇게 소리친다.

당연히 시청률은 오르고 방송국은 한동안 돈을 번다. 그러나 비슷한 작전의 반복에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고 다이아나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다. 미리 고용된 갱단에 의해 하워드는 생방송 도중 총을 맞고 급사하며, 그의 프로그램은 이로써 종료된다. 하지만 마지막 방영물의 시청률만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결국 헛웃음, 울음, 분노는 전두엽 손상의 증세이지만 정상인에게서는 깊은 절망과 우울증의 증세다. 무엇보다도 이는 병든 사회가 유발시킨다.